

# 경기도 김동연, 6·15공동선언 23주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 위해 틀 다시 짜야”

12일,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기념해 평화정책 토론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야심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뻔뻔 외교를 하고 있다”라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나빠져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라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6·15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틀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야심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전 70년과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전 통일부장관(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만식/기자



## 서울시, '서울도시계획포털' 새단장...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쏙'

열람정보 등 자주찾는 콘텐츠 전면 배치, 글자 크기 ↑ 등 디자인 개편...13일부터 서비스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이 새롭게 단장한다. 열람공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도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열람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도 제공한다. 도시계획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새롭게 단장해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신속통합기획(정비지역계획) 등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고시·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각종 도서를 시·구청을 방문 할 필요 없이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도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포털 기능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포털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기능 개편에 나서게 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시민들이 주로 찾고 이용하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노출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특성으로 묶이는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재구성했다.

메뉴는 시민의소리,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 주요기본계획 순으로 재구성했다.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가독성도 높였다.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이콘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서비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의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시관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제한된 기간 내 답변하는 기존 방식보다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과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속도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상세 페이지의 글자 크기 조정 등 포털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을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도시계획 디지털 안내사 서비스'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수상!

대형산불, 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난 총력 대응 공로 인정

경북도는 12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산림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목표달성 우수기관(최우수 2, 우수 3)과 지자체 현안대응 우수기관(최우수 1, 우수 1)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경북도는 대형산불과 재선충병 방제 등 산



림재난 총력 대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자체 현안대응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자체 산림분야 합동평가는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견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 확대의 정량 지표(6)와 △목재이용 우수사례 정성지표(1)로 총 7개의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검증이 이

윤근수/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전략방안 모색

###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 (대표 백순창 의원)는 8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반도체, 항공, 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는 2030년 이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항 배후경제권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 공항의 항공물류지원체계를 분석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인근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통합신공항 인근 지역과 연계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

는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도시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의원은 "항공, 반도체, 방위산업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공항의 사례를 통해 배후지역이 갖는 단점과 부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의원은 "통합신공항 개항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발전의 그늘에 묻혀 소음문제와 같은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백순창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신공항과의 거리적 편익성과 산업 기술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첨단산업도시 구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경북 전체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통해 이제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에서 열리는 만큼 도의회 차원의 발전방안 마련과 정책적 대안 발굴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백순창, 김창기, 김창혁, 박규탁, 정근수, 황두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현안과제 연구로서 오는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체결식 초청 참석

### 경기도내 군(軍)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상시 소통장구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화실에서 주최된 국방부와 경기도 간의 상생발전 협약체결식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어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하반기 안건 대상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최우선과제가 국방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협력임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그 결과 이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고, 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군의 불법점유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국방부 사이에 조속한 업무협

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을 도에서 성실히 이행해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간 협력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북부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도의원으로 한 규제 완화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하여,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정해영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과 경기도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실장, 국방부 박승홍 군사시설기획관, 김순자 시설기획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만식/기자



# 관행 벗고 창의적 시각으로 시민 불편 해소...서울시 '우수 적극행정' 7선

### 새로운 시각,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 해소 또는 정책에 활력 불어넣은 사례들



서울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는 시장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되고, 주, 부공직자에게는 추가 심사를 통해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대회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22개 사례들이 접수됐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방재난본부 현장

대응단의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을 통해 제품 결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전국 소방기관에서 전례없던 '제조사 제품 리콜'을 유도한 사례이다.

제조물(제품) 결함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여 찾아내고, '화재조사 권한'을 가진 소방기관과 '제조물 리콜 명령 권한'을 가진 국가기술표준원의 협업으로 '제조물 결함 조사' 시너지 창출이라는 선례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A사 가스튀김기와 B사 식기세척기 도합 17만여 대 리콜을 유도하는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공적자들은 "화재조사관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열정으로 제조사 리콜을 이끌어 냈을 때의 희열은 어떠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우수 사례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과 물재생시설과의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은 산업현장에 난립한 기존 안전표지들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위험 노출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안전 픽토그램과 안전표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언어, 연령, 경험 등 개인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안전디자인을 개발하는 한편, 색각이상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색 중 빨강(금지), 초록(안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을 선정하여 새로이 마련된 안전디자인에 반영했다.

물재생시설과의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과 화력발전소 연료 판매에 의존하던 기존의 처리방법을 시멘트 보조원료와 토지개발제로 활용하여 처리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하수찌꺼기를 친환경 건설자재 재료, 열병합발전 연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사례이다.

수도권매립지 처리량 감소와 화력발전소 연료 전환계획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처리하지 못한 약 16만 톤의 하수찌꺼기를 민간에 위탁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처리방법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한 하수찌꺼기 처리 체계를 구축했고,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장려 사례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의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추진사업',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재정비촉진사

업과의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적용', 버스정책과의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 적극 개선'을 위한 노선운영' 4가지 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및 불명확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처리 방향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에서 면책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문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전남도, '우리동네 복지공동대' 전남 행복시대 큰힘

### 화순서 어울 한마당...성과공유·취약계층 복지증진 다짐

전라남도는 12일 화순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도내 취약가구를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공동대 어울 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구복규 화순군수와 22개 시군 복지공동대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이웃의 생활 불편을 찾아 따듯하고 아늑다운 봉사를 실천해온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공동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와 기념식,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꾸며졌다.

전남도립극단식전공연에 이어 기념식에선 복지공동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22개 시군 복지공동대장의 임장식과 공동대원에게 배지를 패용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어 복지공동대 활약 영상을 통해 그동안 활동상을 돌아보고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을 다짐했다.

또 복지공동대원이 출동해 허름한 집을 새집으로 고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공동대원 모두가 공감하며 하나 되는 의미있는 시간

으로 운영됐다. 오후연 축하공연과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8개 팀이 어울림 체육행사를 통해 공동대원이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복지공동대의 활약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복지공동대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즉석 사진 인화기가 가능한 '인생네컷'과 포토존, 타로점 및 힐링뷰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위기가구지원 콜(120), 교통안전 홍보, 안전 체험 등 정책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전남도는 우리동네 복지공동대 전남의 명품 복지시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대원의 역량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인 '우리동네 SOS' 운영 활성화, 위기가구 지원 콜(☎120) 연계 취약계층 발굴 등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 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

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골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박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직원:청소년책임보조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112) 문화부:내선(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113) 부동산부:내선(117)  
 경제부:내선(114) 오피니언부:내선(118)  
 스포츠부:내선(115) 지방부:내선(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공원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생태문화프로그램 운영

### 문화비축기지 '2023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6월 22일~12월 말까지 총 72회 진행



문화비축기지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와 생태적 감수성을 더하는 공원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매해 시민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매년 6~10개의 공원 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비축기지의 자연 친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3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은 시민기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매주 목·금·토요일 진행되며, 6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72회 수업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가족 대상 자연미술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놀이 공예

및 독서 원에 프로그램, 성인 대상 나무 및 매듭공예 프로그램 등 대상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로 운영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문화비축기지 야외공원, 탱크 실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공원의 계절과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매듭스토리'는 전통매듭으로 일상 소품을 만들어 보는 전통공예 프로그램으로, 매듭을 배워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매듭 모양별 유래와 의미 등이 아기가 함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드카빙! 나무로 살림!'은 나무를 깎는 과정에 몰입하며 힐링을 경험하는 나무공예 프로그램으로, 3주 과정 동안 살림 도구(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른 나무 숲속 재료로 모빌, 위빙, 열매 공예 등 나만의 놀이감을 만들어 보는 어린이 대상 공예 프로그램이다.

환경의 날(ex. 상어 인식의 날, 비닐 없는 날 등)과 관련된 도서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다양한 식물을 이용한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초등학생

서울시는 문화비축기지에서도 오는 6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2023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독서 원에 프로그램이다. 문화비축기지의 다양한 장소에서 최신 K-POP(뉴진스, 르세라핌 등) 안무를 배우고, 댄스 챌린지 등 영상 작품도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22년 많은 인기를 얻은 가족 대상 자연미술 프로그램은 올해도 새로운 주제로 함께한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가족 미술작품을 만들고 자연의 순환과 소멸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비축기지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대상, 운영 기간, 모집 일정, 참가비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문화비축기지 블로그 및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수/기자

# 송파구,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 극복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 실시

### "구민 안전 최우선으로, 재난 발생시 응급 대처는 물론, 심리적 회복 지원할 것"

신체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심폐 소생술이라면 재난 상황 등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대한 응급처치가 있다!

송파구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구민들의 정신건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리적 응급처치(PFA)'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수일 이내의 시기에 제공하는 심리적인 응급처치로, 재난 경험자의 초기 고통을 감소시키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인 정신 건강 기능회복을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재난 발생 시에 심리적 응급처치 기능을 수행하는 재난 정신 건강 지원 인력을 양성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송파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건의료분과와 함께 관내 40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9일 실시한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포함진트라우마센터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재난과 정신건강', '심리적 응급

처치 행동지침' 등 이론교육과 ▲재난 응급상황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역할을 실습해보는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6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PFA 초급과정 수료증이 발급됐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 시 재난 심리지원서비스와 심리적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40명의 재난 정신건강 회복 지원 인력을 양성했다.

구는 재난으로 겪는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발생 직후의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재난 정신건강 회복 지원 역량을 키움으로써 재난 경험자에게 적절한 심리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는 증상 회복과 일상 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한 재난 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발생시 응급 대처는 물론, 심리 건강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 7월부터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9월부터 100만 원으로 확대

영등포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비용은 249만 원으로, 대부분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들은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75.6%)'을 뽑았다.

이에 최호영 영등포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민선 8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신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구가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4월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7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더 나아가 9월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서울시와 5:5 비율로 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7~8월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하여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임신 준비 가정을 위한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의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요가 등 산전 프로그램 ▲산모를 위한 베이비 마사지 교실 ▲첫만남이용권 바꾸쳐,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난임부부와 임신부, 부모를 위한 다양한 맞춤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최호영 영등포구청장은 "아이 울음 소리가 소중함 요즘,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산모와 양육 가정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영등포구가 구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

2023년 7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시기	2023.7.1.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산생아를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재난지원금' 제외(산모, 배우자,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배우자 제외)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0만원 지급 (소득수준 무관) 보: 서울지역에 한해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배우자 제외
신청 기간	산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및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산모 영장 발급필(사본)
지원 일자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구편)
문의	영등포구청 복지지원과 ☎ 2670-4231

# 은평구, 사회복지 담당 역량강화 교육...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번아웃 극복

### 지난 8일 사회복지 공무원 40명 대상 교육

은평구는 8일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민원 응대와 업무수행에 있어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 정신적 탈진상태에 빠지는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복지 담당 직원들의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직원 번아웃 극복방법'을 주제로 안해용 강사(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가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안장애·강박장애 등에 대한 이해, 정신질환 및 악성민원

대처방법, 직원 스트레스 대처법 및 긴장완화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 및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으며 만족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서정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진행했다. 관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대학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김미경 구정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해소돼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서초구, 고시원 관리자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 열어

서울 서초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구청 9층 교육장에서 관내 고시원 관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고독사 위험현황(2021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139건의 고독사가 서울시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11.1%가 고시원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고립자의 고독사·생활고 등 안타까운 사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고시원 관리자의 △복지사각지대 신고주체자 역량 강화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구에서 제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상식 교육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 △복지·금융 퀴즈대회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신고하는 방법과 지원 가능한 전반적인 복지 제도들을 꼼꼼하게 안내한다.

특히 사업실패, 실업, 비정기적인 소득활동에 따른 금융부채로 어려운

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고시원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재무·채무 전문가 전용상담관을 강사로 초빙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채무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유용한 꿀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지역주민이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살필 수 있도록 '위기가구 찾는 법'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 배포했으며, △지역사정에 밝은 생활밀착형 업소를 복지사각지대 신고 채널로 운영하는 '좋은 이웃 가맹점' △고시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책나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서초1동 '고고넷(고독사 없는 고시원 네트워크)'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필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초'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성북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 제4회 장위1동 주민총회 개최

### 마을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위해 제4회 장위1동 주민총회 6월8일에 개최



성북구 장위1동 주민자치회(회장 노선철)가 지난 8일 장위중앙장로교회에서 제4회 장위1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50여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 100명을 훨씬 뛰어넘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장위1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50여명은 각 분과 별로 마을을 위한 의제를 발굴했다.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접 공람지를 배포하러 다니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날 의제투표 결과에 따라 △따뜻한 한끼를 먹여요 △사랑의 풀리마켓 △장위동을 바꾸는 시간 △우리동네 주민자치학교 △주민소통방 △어르신 건강 태권도 △향나무 어린이 사회전 △옹기종기 장독대 △사랑의 헌혈DAY 순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순위를 반영해 2024년 주민자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선철 장위1동 주민자치회장은 "귀한 시간을 내서 주민총회에 참석해주신 주민분들과 내빈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사가 됐기에 더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주신 제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장위1동 주민자치회가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2024년 장위1동 주민자치사업을 위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며 "장위1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주민의 대표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경기도, 산·학·연 11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모은다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성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주)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주)동탄이엔지 이광호 대표, (주)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주)피앤에스인터내셔널 임재영 대표, (주)에스아이엔지니어링 임윤수 대표 등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 ▲특화 교육·산업·연구 이주제 또는 학위 수여 방안 마련 ▲대학 간 학사 제도 교류를 통한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업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력수급 문제다. 협약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경기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나아가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AI 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쪽도 다

양하게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반도체산업과 신설했다. 이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경기도 반도체 인력 개발센터'인 '지스펙(GSPEC)'을 설치했고, 3~4월 '반도체 공유대학' 지정 공모를 추진해 최종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를 선정했다.

반도체 공유대학이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공유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 수요분석과 수요 맞춤형 전문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 중심형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등 '취업 연계형 인재 양성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첨단산업(반도체) 인재 양성 부트캠프' 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인력양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12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공동 협약 체결

최만식/기자

## 광주시, 제2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0명 위촉

광주시는 12일 제2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과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을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2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

업의 서포터로서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성별 불균형요소 및 불편사항 발굴과 개선의견 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 수렴 활동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시민참여단 위촉식에 이어 2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인 박은순 강사의 양

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 향후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우리 시는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대표성을 가지는 시민참여단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

인 활동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구성된 제1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시와 함께 안심보행로인 행복보도길 조성, 홍보물 성인지관점 모니터링, 편안한 안심화장실 조성, 젠더폭력 예방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강호/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 제2차 간담회 개최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광역시 서구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회'는 이달 9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구청 공동체협치과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와 선진기관 방문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전선거구)과 소속의원인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전선거구),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전선거구),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전선거구)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 의원들은 공동체협치과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

내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서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표준조례안 준용 방안과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타 시·군·구의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지방문 비교시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했다.

이날 백승기 대표의원은 "앞으로의 연구회 활동을 통해 공동체협치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를 준용하되 서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조례안 정비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남/기자

##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절차 시작... 12일 1차 심사

### 1차 심사 거쳐 11월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본 심사 예정



광명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해온 국제안전도시 공인 절차가 시작됐다. 시는 12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1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1차 심사는 스웨덴 국제

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의 2차 심사(본 심사)에 대비한 국내 사전심사이다.

심사는 ▲총괄 보고 ▲손상감시체계 ▲도로교통 손상 예방 ▲낙상 예방 ▲지역 안전 ▲자살 예방 ▲폭력 예방 ▲고위험군 등 사고예방에 대

한 분야별 심사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했다.

시는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해 11월에 예정된 2차 심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안전은 모든 기관, 단체, 시민이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며 "11월에 있을 2차 심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 광명시가 최고의 국제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단장을 맡은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은 "국제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를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공인하는 것"이라며 "광명시가 5년여에 걸쳐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

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 33개국 43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28개 도시가 공인받았다.

광명시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기 위해 2018년 10월 55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선포하고 2019년 3월 '광명시 안전도시조례'를 제정했다.

윤용민/기자

##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국내 협력도시 하남시 - 공주시 청소년 교류활동 3차 실시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6월 10일 하남시 협력도시인 공주시 청소년들이 하남시를 방문하여 하남시 청소년들과 공주시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년 교류활동을 실시했다.

금번 공주시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은 하남시와 공주시가 국내협력도시로 청소년기관인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과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 2021년도 12월 2일 청소년 문화교류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세 번째 진행했다.

첫 교류활동은 같은해 12월 14일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양 기관 청소년들과 후아카데미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주시 청소년들과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이프랜드의 가상공간 세계에서 백제 역사를 주제로 하여 진행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2일 하남시 청소년 50여명이 공주시를 방문하여 옛 백제 역사문화 및 명소탐방을 시작으로 "꽃꽃" 시 낭송 시인과의 만남, 백제 전통복 착용, 그리고 역사 골든벨과 친목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하남시와 공주시를 알아가는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6월 10일 공주시 청소년들 30

여명이 하남시를 방문하여 하남시 청소년들과 함께 60여명의 청소년들이 덕풍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교류활동과 하남역사박물관 탐방, 그리고 하남시의 랜드마크인 유니온타워 관람 등으로 3차 청소년 교류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양 도시간 청소년이 하남시와 공주시를 각각 방문하여 함께 참여하면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청년 다운 박성정 단원은 "하남시와 공주시 청소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마다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공주시 청소년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특별한 추억이 됐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정재우 관장은 "금번 공주시와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시작으로 국내협력도시인 하남시와 공주시의 두 지역 청소년 간 상호 이해증진과 화합우애를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청소년문화교류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양 도시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우기 앞두고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장 점검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안양시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장 방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우기 이전 설치 완료 여부를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지역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지난해 수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빌라와 단독주택 1천 187세대 주택 침수와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돼 약 160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고 다수의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현장 점검 후 "올해는 엘니노 등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우기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잘 마련돼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침수 피해 예방 및 근본적인 배수 능력향상을 위해 도 재난관리 기금 11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방지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50%를 시·군에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방지주택 4천 588세대, 공동주택 203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침수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세대 발생에 대비해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덤 등 수방 자재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곁에 없어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위험 상황 알람장치 지원과 대피 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 부천시, 일반동 전환 대비 부천시자율방재단과 회의 진행

## 부천시자율방재단 조직 운영 방안 등 논의

부천시는 부천시자율방재단 주관으로 지난 9일 일반동 전환을 대비하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천시 365안전센터장이 참석해 자율방재단원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태웅 부천시자율방재단장의 주재로 각 36개 동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동 전환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방안 ▲일반동 전환에 따른 조직 정비 방안 등 일반동 전환에 대비하여 부천시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재해구호 국민 안전교육 ▲어른들 자율방재단 활동요령에 대한 자율방재단 교육이 이어졌다.

부천시자율방재단은 최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자연재난 관련 전 분야에서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태웅 단장은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해주시는 단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일반동 전환 후에도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선 부천시 365안전센터장은 "부천시 안전을 위한 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부천시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오산시 초평동-대림제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실시

오산시 초평동(동장 심연섭)은 지난 9일 주거생활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개선해주는 사업인 '파랑새 든-든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대림제지 노조위원회와 협력으로 추진 중인 '파랑새 든-든해' 사업은 초평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도배·장판·전등 교체, 전기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두곡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싱크대 파손과 실내 벽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우천 시 전선 불량 차단기로 인한 누전·화재의 안전 위험에 처해 있던 복지 위기가구로, 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복지사가 제보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대림제지 노조위원회 강봉주 위원장 비롯한 노조회원 8명은 9일 이른 아침부터 누전 위험이 있는 노후 전선 교체 및 수리, 벽지 및 장판 도배, 파손된 주방 싱크대 및 수납장 교체 설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강봉주 대림제지 노조위원장은 "실내 환경이 열악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주택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노조 회원들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집수리를 해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고양시 지축종합사회복지관,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함께 반찬나눔쉐프 봉사단 상반기 활동 마무리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10일(토) 현대모비스 '반찬나눔쉐프' 봉사단 상반기 마지막 사업을 실시했다. '반찬나눔쉐프' 봉사단은 현대모비스에서 진행되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이다. 봉사단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활동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도 3월부터 활동을 재개했다. 봉사단은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가족,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모비스 그룹으로부터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총 3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아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반찬나눔쉐프 봉사단은 밑반찬을 직접 조리하고 식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지역주민 25명에게 전달했다. 봉사단은 2023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매주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지원했다.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는 "반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반찬을 받는 것을 아시고 미리 사전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끼 반찬이 만들어지는 정성스러운 과정과 반찬을 드시는 분들의 감사한 마음이 충분히 소통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찬 나눔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맛있게 드셨다고 웃는 모습으로 말씀하실 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광형 봉사자는 "지속적으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와 후원으로 적극 참여하며 돕고 싶다"라며 지속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 송미령 관장 또한 "앞으로도 현대모비스 임직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와 고양시지축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이후 하반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시장 영업 차질 없도록 4년간 4단계 순환방식 공사 진행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20년 이상 경과 하면서 시설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물론, 판매-저장시설의 부족 및 주차시설과 물류통선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6번의 도전 끝에 2021년 최종 선정됐으며, 이후 행안부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다. 총사업비는 약 704억 원(국비30%,

시비30%, 용자40%)으로, 올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매시장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4단계 순환방식으로 2년간 단계별 공사를 진행해 청과물동 증축(8,540㎡), 구근류 경매장 신축(14,900㎡),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중도매인 점포 설치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계별 공사 추진에 따른 유통종사자 및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공사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용역 반영 등을 위해 관련기관 및 유통종사자가 참여하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 착공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는 3기 신도시 등 인구 약 8만7천 명 규모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농산물 공급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서북부권역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효율성이 증가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져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시민에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 위한 실습교육 위주 교육 프로그램 마련

용인시특례시가 12일부터 16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어·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최만식/기자

# 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조기 검진 인원 ↑"

## 다섯 달 새 선별·진단·감별 검사 2053명으로 3.4배 증가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으로 치매 조기 검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의 성남시민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오면 지원이 이뤄진다. 협약 병원(7곳)에서 치매 감별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혈액 검사를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5만~3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성남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 카드 뉴스,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버스, 지하철 광고,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치매 감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알렸다. 올해 1월 605명이던 치매 선별·진단·감별 검사 인원은 다섯 달 새 2053명으로 3.4배 증가했다. 3차 감별검사까지 진행한 인원은 177명이며, 이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 41명에게 646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시는 어르신들의 경제력 부담을 줄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려는 사업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60세 이상 노인 20만1685명 중에서 6.77%인 1만3654명이 치매 환자"라면서 "감별검사비 지원에 관한 홍보를 지속해 치매 검사에 관한 관심과 조기 검진율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 이천시 마장면 주민자치회, 제2회 마장매화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마장면 주민자치회는 2022년 10월 29일 제1회 마장면 마장매화둘레길 걷기대회에 이어 2023년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제2회 마장매화둘레길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마장면민 4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마장매화둘레길을 걸었다. 이날 진행 코스는 마들길 일부인 '마장면사무소(출발)-오천리3리 마들길 표지석-미니정원(무궁화동산)-각평교-미로정원(도착)'을 걷는 3km의 편도 코스로 구성됐으며 다섯 지점에서 스탬프를 받아 걷기대회를 참여하는 주민들이 총 5개의 스탬프를 모아 도착지점에서 걷기대회를 하며 느낀 점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1회 걷기대회와는 다르게 편도 코스로 더 긴 둘레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됐고 도착지점에서 둘레길을 따라 더 건다보면 마장면조사료작목반, 청보리사업단과 주민자치회가 연계한 트리터

케일 포토존을 만날 수 있었다. 트리터 케일은 호밀과 밀을 교잡한 작물로 2023년 신기술지역특성화사업이다. 장경희 마장면 주민자치회장은 "제1회 마장매화둘레길 걷기대회에 이어 제2회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1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3회, 4회에는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둘레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지속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회근 마장면장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둘레길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향후 걷기대회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해 더욱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다."라며 "둘레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마장면 주민자치회는 둘레길을 가꾸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둘레길 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 평택시, 2023년 민·관 합동 집중호우 예방 추진

## 폭우는 있어도 재난 없는 서탄면



평택시 서탄면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7.1.~8.15.)를 대비하여 폭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9일 서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율방재단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우에도 신속

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역할과 임무 숙지, 수해 장비 사전점검, 취약구간 현장 확인, 자율방재단 폭우 취약지역 지정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총회 후 관내 도로 배수시설 주변 낙엽 및 토사 제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자율방재단에서 16회에 걸쳐 서탄면 주요 도로변 약 20km 650개소 배수로 정비를 했으며, 2023년 6월 현재 6회에 걸쳐 배수로 주변 퇴적물 80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조덕상 서탄면 자율방재단장은 "서탄면 취약지역인 세월고 및 지리상 저지대인 내천리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개인장비(1톤 트럭 2대)를 활용하여 우기에 수해 장비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단을 편성했다. 폭우는 있어도 재난 없는 서탄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확고히 하며, 집중호우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박선향 서탄면장은 "서탄면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율방재단원들께 감사드리며, 호우를 대비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우기시 내집·내점포 앞 주변 낙엽 및 폐기물을 치워 배수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광역시자체 최초, 대구광역시 누리집 전자점자 서비스 개시

## 문화·복지·교통 등 정책안내, 정보공개 등 6월 중순 본격 시행

대구광역시는 6월 중순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시정 정보와 소식들을 전자점자 파일로 제공한다.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구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식 및 분야별 정보를 전자점자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 제공했던 음성서비스로는 도표, 그림으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음성정보는 문자정보에 비해 전달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대구광역시 대표 누리집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 7월 말까지 청년정책 누리집,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등 시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콘텐츠 및 게시물의 우측 상단 ‘전자점자파일 내려받기’()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파일로 변환돼 시각장애인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다. 시각장애인은 저장된 전자점자파일을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전자점자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대구광역시 정책을 올바르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문화·복지·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확대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들이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남해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남해군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만51세부터 만70세 농업영역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하며,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해병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로 선정된 김 모씨는 “일반검진에서는 받을 수 없는 농약중독 검사 등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근골격계 예방운동 및 심폐소생술도 배워서 유익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유통지원과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검율 100% 달성을 위해 안내문자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농번기로 바쁜 일정이지만 검진을 꼭 완료하시어,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타국 생활에 지친 계절근로자에 ‘숲 치유’ 제공

## 산림치유원과 연계 '계절근로자 화합의 날' 개최...안정 정착 주력

경북 영주시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12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올해 상반기 1~2차로 입국한 필리핀 마발라카시와 말로시 근로자 99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랜 타국 생활에 지친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외국인 대상으로 추진하는 포레스토리(Forestory) 특성화캠프 연계 행사다.

참가자들은 산림치유원에서 잣나무숲 해먹체험과 통나무명상, 수(水) 치유센터 수치유 체험 등 산림치유원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따뜻한 치유를 경험했다.

시는 농번기 내내 고된 영농작업에 종사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영주의 숲체험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립산림치유원 행사 소식에 근로자 및 고용농가, 해외지자체당국 모두 큰 호응을 보였다.

또한 필리핀 독립기념일(6월 12일)에 맞춰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해 필리핀 근로자 사기진작 및 필리핀 지자체 내부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대표근로자 P씨(38세)는 “필리핀 못지않게 더운 한국의 여름 영농작업이 힘들지만, 이런 화합의 날 행사로 영주시, 산림치유원 및 고용주의 적극적인 배려를 실감하게 되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하

고 있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외 지자체와 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 교류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영주지역 농촌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69농가에 183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3개 도시 124명이 39농가에, 결혼이주여성 13명의 본국 가족 59명이 30농가에 배치되어 현재 고용농가와 함께 다양한 영농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농가와 소통의 역할을 위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언어소통도우미를 지정 배치하고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문경시-한국한의학연구원 사업협력 교류 협약 체결

문경시는 6월 12일 문경시청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약용작물 산업분야의 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양 기관 간 연구협력 제안을 시작으로, 두 차례 기관 방문 및 재배연구 추진 협의를 통해 금일 MOU를 체결하게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

로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한약 신소재의 수급 안정화와 실용화 방안에 대한 문경시농업기술센터의 작물 시험재배 및 재배기술 정립 등 약용작물 신소득원 발굴과 실용화 기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시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협력 체계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소득 약용작물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향후 양 기관의 협력이 약용작물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부산에서 열린다

## 아시아~동유럽 유라시아 철도망 관련 20개 회원국 장관급 150여 명 참석

부산시는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유라시아 국제철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최고결기구인 OSJD 장관회의를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OSJD 장관회의는 세계 주요 회원국 도시에서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이번이 첫 개최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는 1956년 6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기구로 국제철도 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며, 현재 중국, 몽골, 북한 등 3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OSJD 가입 후 201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제48차 회의에서 '23년 OSJD 장관회의의 국내 유치에 성공했으며, 부산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국제철도기술산업전 연계 개최 등을 강조해 장관회의의 부산 개최를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 지난 12월 최종 개최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오는 6월, 4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되는 이번 장관회의는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회의이자,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내 최초 개최되는 장관회의다.

이번 장관회의는 20개 회원국 철도 관계 기관장을 비롯해 주요 철도 운영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1~2일 차 실무회의, 3일 차 개막식 및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4일 차는 문화산업시찰로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 및 해운대 해변열차 블루라인 파크에 방문할 예정이다.

OSJD 장관회의는 통상 연 1회 개최되며, OSJD의 활동 방향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의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OSJD 장관회의의 참석국 중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18개 국인만큼, 철도 장관급 등 대표단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환영 만찬 등을 개최해 유라시아 기종착점으로서 글로벌 교통 물류 허브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엑스포 개최 도시로서의 역량을 홍보하여 표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철도 전문 전시회인 '제11차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23)'의 연계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철도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OSJD 장관회의와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글로벌 교통물류허브도시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유라시아 주요국 및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 울진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울진군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손병목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중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식 저

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목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하는 등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영천시, 유망 식품기업과 현장 소통행정

## 식품기업 청년CEO 리더십 응원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2일 관내 식품기업 (주)한울과 데이델즈를 찾아 청년 CEO들과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쳤다.

(주)한울은 농산물 유통 및 서류가공품, 과채가공품, 잼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고무마말랭이 제품은 특허를 보유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2년 제2공장 설립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매출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우수 식품기업으로 전세계 식품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최근 개발한 채소스틱과 인지제품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데이델즈는 영천시와 특산물인 마늘을 상품화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흑마늘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늘 특유의 맛과 향을 완화하는 흑마늘 특허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로컬산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소스를 개발.제조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식품, 밀키트식품에 적용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착즙류, 젤리 등을 생산하는 유망 건강식품기업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년 기업가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식품기업의 성장방안과 맞춤형 시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천시는 '경북도 2030 농식품 가공산업 대 전환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식품가공업체를 육성하고, 청년 기업인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식/기자

# 구미시, 기업친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박차

## 평생학습원, LG디스플레이에서 가족소통특강 개최



구미시는 10일 LG디스플레이 4·5·6단지 복지동 대강당에서 기업체 근로자 및 사원가족,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소통 전문가 김지윤 강사의 '슬기로운 가족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사원 가족과 함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시간 동안 열띤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사특강 △실반특강 △배달강좌 △퇴근길 보이는 라디오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접수를 통해 LG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기업체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평생학습을 원하는 직장인 및 기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직원역량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과 배움이 공존하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직장 생활로 인해 따로 시간을 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회사로 찾아가 강의와 휴식을 함께 하는 가족생활에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중우 평생학습원장은 “직장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여가생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업 및 직장인들에게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함으로써 학습 만족도 제고 및 기업친화 평생학습도시 구미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 예천군, '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 마을 선정 쾌거

#### 효자 사곡·은풍 은산1·감천 별방리 4년간 70억 투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예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 대상으로 효자면 사곡리·은풍면 은산1리·감천면 별방리 등 3개 마을이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용궁면 향석2, 감천면 수한리, 지보면 상월리, 보문면 독양2리, 풍양면 공덕2리 등 5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용문면 선2리, 개포면 금리, 예천읍 갈구2리, 지보면 마산리, 풍양면 공덕1리 등 5개 마을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효자면 사곡리 등 3개 마을은 2024년부터 4년간 국비 4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

해 △위험구역 안길 및 축대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노후 집수리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개량 △담장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해 △실버 건강 관리교육 △마을발전 현장 포럼 △공동체 어울림 교실 △빈집 코디네이터 양성 등 휴먼케어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하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후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취약지역 대상마을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내수면 '양식기술지' 및

## '어업인 소식지' 발간

#### 내수면 양식기술과 동향, 수산통계, 각종 지원사업 정보 안내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지상철)는 『양식 기술지』와 『어(魚)누리 소식지 2호』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수면 산업 종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 기술지는 내수면 양식어종 2종(미꾸리, 동자개)에 대한 친환경 양식 전문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어누리 소식지는 양식동향, 수산통계, 지원사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양식 기술지는 초기 양식업을 준비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내수면 주요 양식어종인 미꾸리와 동자개의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돕기 위해 제작된 어종별 양식 기술지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양식 과정과 기술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기본적인 어종별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친어 관리와 종자생산 과정, 부화 후 사육관리,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질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사육 중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대처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귀어·귀촌인들이 관심을 갖는 친환경 양식 양식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기술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양식생산성을 높이고 건강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연간 분기별로 발간되는 어(魚)누리 소식지는 주요 양식 품종별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내수면 어업 생산량 통계, 어업인 지원 사업, 각 사업별 주요 업무 현황,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신종 개발 사업, 어자원 조성 및 각종 시험연구 사업 등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내수면 주요 양식어종 및 토속어종 관상어 등의 기술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양식기술 민간이전 등 정보공유를 통해 양식기술 개선을 통한 시행착오 감소 및 어업 생산성 향상에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이



번 내수면 양식 기술지와 어업인 소식지 발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산 정보를 수록해 내수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소식지 등을 발간·배부해 내수면 수산업

에 관련된 최신 소식과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2023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을 찾습니다!

#### 공예품 개발·생산장려금 1천만 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지원

부산시는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여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예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예의 가치를 발굴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예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해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자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

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력이 있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예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1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신청서 등을 부산시청 경제정책과(17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향후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기타공예 등 6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8월 부산시 공예문화산업심의회 종합심사를 거쳐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예명장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주어지고, 우수공예품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공예품 개발·생산장려금이 인당 1천만 원(연 500만 원, 2년간 분할)이 지원된다. 또한, 부산시 정책자금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가점 3점)이 되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도 50% 할인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지역 공예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발전과 공예자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공예인을 발굴하여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우수 공예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 권기창 안동시장 예산

## 우박 피해 농가 방문 '신속한 구제대책 주문'

권기창 안동시장이 12일 예산면 일대 우박 피해 농가를 방문해 농민을 위로하고 발 빠른 복구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안동시 예산면 정산1리, 주전 1·2리, 천전리, 귀단1·2리, 태곡리, 인계리, 구룡리 일대에 지름 1cm 내외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날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리면서 사과, 고추, 호박 등 농작물의 과육이 움푹 패거나,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400여 농가 200ha에 달한다. 특히, 사과 등 과수 150ha 약 200여 농가, 고추 등 채소 50ha 약 20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경북도에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했다. 우박은 시군별 30ha 이상일 경우 농식품부 복구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영농재개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물과 면적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한 뒤 피해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직접지원과 농축산경영자금 상황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의 간접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직면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신속한 복구 지원을 펼쳐 피해 농민이 조속히 영농 활동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 생생버스 다섯 번째 정거장 울릉군, 생생한 현장 목소리 전달하다.

#### 이철우 지사, 박정희 기념관 방문해 국토수호 결의와 지역발전 다짐

울릉군은 지난 12일 농업인회관(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소통프로젝트 '생생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이 살아야(生) 나라가 산다(生)'의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이번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회의회장, 남진북 경북도의원 및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현장방문으로 도동향 광장의 '오독이' 조형물 제작식 참가를 시작으로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 옛 군수관사'를 방문해 그 당시 정기선이 없던 절해도에서 오늘날 울릉공항 신설과 일주도로 개통까지 울릉도의 미래를 꿈꾸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와 현재, 희망찬 미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 118전대를 방문해 국경을 수비하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민을 대표해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경북도, 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와 함께 '글로벌그린 유(U)시티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울릉 지역혁신학기제를 통해 매학기 한동대 학생 20명을 울릉도 현장학기제를 운영해 지역 학생과 공동으로 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및 글로벌로테이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교류

대학에 재학생 및 지역 초·중·고 학생 해외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 청년 정주시대 실현을 추진한다.

생생 간담회는 약 80분간 이루어졌으며, 울릉군의 현안 및 도정방향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다양한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7월 청송군 예정

이철우 도지사는 "울릉군은 영도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팡이다"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수호 결의와 지역발전 유지에 따라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불안해하는 군민들에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의 힘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한권 울릉군수는 "생생버스의 전신인 행복버스가 큰 성과를 낸 만큼 생생버스 또한 지지 않고 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소멸 위기인 울릉도가 특별법 제정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시대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제/기자



## 청송 품은 향토음식을 개발하자!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원 청송사과요리 교육 추진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음식연구회원 대상으로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요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기간은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3회 운영되고, 하반기에 5회 정도 요리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청송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하여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사과소스 떡갈비, 산채나물 사과탕수, 사과견과와 떡 등 9가지 메뉴로 진행해 일상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에 사과를 활용한 청송만의 창의적인 개발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3회차 메뉴인 사과소스 떡갈비는 주부 및 식당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와 노하우



를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향토음식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청송사과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전시 및 시식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청송향토음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정희 청송군수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청송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식품 및 레시피를 개발하고,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청송군의 품질 좋은 농산물 홍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상황 점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요인 사전 차단

봉화군은 10월 부터 시작되는 2023~20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대비해 관내 전업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점검은 6월 12부터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산란계 밀집단지외 3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는 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 30만수 미만 산란계 농가는 군에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방역시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차량·대인)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강화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고, 최대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차 점검기간(8월 1일~9월 15일) 동안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2023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9시군에서 75차례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봉화군의 전업규모 가금농가는 총 24농가로 산란계 10농가, 육계 12농가, 육용오리 2농가이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가금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조기에 보완해 농장 외부에서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다가오는 2023~2024년 동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군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지사, 수산업계 피해주는 오염수 괴담 적극 대처 주문

### 도민체전 등 모든 행사와 정책, 시대 흐름에 맞춘 변화 주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와 괴담들이 유포되어 수산업계와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할 때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간부들에게 도민체전을 비롯한 모든 행사와 정책들에 대한 발전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잘했든 못했든 있는 그대로 도민에게 알리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남의 농가평균소득이 하위권이라는

통계청 자료와 관련해서 경남의 농업발전 전략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남의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이 낮다는 행정안전부 평가결과를 언급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시 범죄예방 이외의 용도로 등록하는 등 평가에 대한 실무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방범·교통·청소년 등 도민생활 개선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폭염과 폭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는 물론, 재난이 생겼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고속열차 운영을 2028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발표를 환영하며 “경전선 KTX, 수서행 SRT 증편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남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철도망 구축사



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우리 경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기재부 심의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수상구조 교육’ 실시

의성군은 7월 1일부터 2개월간 여름철 물놀이 관리구역(12개소)에 배치되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0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상구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구조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은 의성 청소년센터 수영장에서 진행했으며, (사)경북수난구조대 백민규 대표이사 및 수난구조사 10여명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실내교육과 구조장비 사용법, 구조요법 등 수상구조 교육을 병행한 다양한 위급사항에 맞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올 여름철에는 많은 물놀이 이용객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상구조교육을 통해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외국인근로자 스마트폰 사진 전시회 개최

### 11월 30일까지 30점 작품을 지역 6곳에서 차례로 선보여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스마트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4·5월 두 달 간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점의 외국인 근로자 일상 사진을 지역 6곳의 장소에서 차례로 선보인다.

상당카페 너는 봄(6.10~7.9)을 시작으로 경주시청 민원실(7.10~7.14), 카페 경주르(7.17~8.18), 외동 소통문화센터(8.21~9.22), 카페원더(9.25~10.27), 마지막으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11.1~11.30)에서 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달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노동, 법률 등의 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윤타용/기자



윤근수/기자

# 영양군청우회, 영양양수발전소유치기원‘릴레이캠페인’

### 양수발전소 영양이 딱이다, 군민모두가 만장일치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12일 오전 영양읍 법원사거리에서 영양군청우회와 함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양봉철 상임의장, 오도창 영양군수, 범군민유치위원회 소속 위원장단 및 집행위원, 영양군청

우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제6차 범군민 유치위원회 상임 공동유치 위원

장단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으로 제 18회 산나물축제 때 개최했던 범군민 결의대회 이후 양수발전소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미 국민의힘영양군당원협의회와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영양군애향청년회가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영양군청우회 이후엔 16일 영양군체육회, 19일 영양군이장연합회가 열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범군민유치위원회는 앞으로 9월 유치 확정 발표 전까지 관내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영양군과 함께 양수발전소 유치 챌린지도 진행한다.

양봉철 상임의장은 “이미 결의대회를 통해 군민들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많은 단체와 많은 군민이 릴레이 캠페인과 챌린지에 동참하여 양수발전소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도 군민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제36회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 대구시 출산정책홍보관 운영

### 출산정책홍보관 (미혼/결혼, 임신/난임, 출생, 육아, PLAY ZONE 운영)



대구광역시 (주)엑스코, 메세이상공동 주최, 대구광역시 후원하는 '제36회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에서 출산정책홍보관을 운영한다.

대구 베이비&키즈 박람회는 (이하 '베키')는 2002년 개최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36회를 개최해 오면서 다양한 최신 브랜드의 임신·출산용품과 유아교육용품 소개와 판매로 영남권 최대 영·육아용품 박람회로 성장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오프라인에서 접하기 힘든 국내·외 브랜드 포함 150개사 50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대거 참가하며, 특히 주목할 점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과 육아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구시 출산정책홍보관이 운영된다.

출산정책홍보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미혼·결혼ZONE, 임신·난임ZONE, 출생 ZONE, 육아 ZONE, 플레이 ZONE 등 5개 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산보육정책 안내와 4개 참가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혼·결혼존에서는 예비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책을 홍보하고 참가기관 인구조번복지지원회 대구경북지회 등에서 퍼스널 컬러테스트, 인생네컷 사진찍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신·난임존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난



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 등을 홍보하고,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임신부(배우자 포함) 정신건강상담과 아크릴무드등 만들기 등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인구조번복지지원회 대구경북지회에서 만삭임산부 체험, 아기모형 안아보기, 아로마 베이비 마사지오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출생존에서는 첫만남 이용권 등 전반적인 출산정책을 안내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대구형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등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또한 대구간호사회에서 전문간호사를 초청해 영유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질식사고예방법 등 부모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임신성 당뇨 및 고혈압 검사 등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육아존에서는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상담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상담을 진행하며, 센터 장난감 무료나눔 및 영유아가정 대상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는 장난감 나눔 마켓을 운영한다.

윤근수/기자

**exco BeKi 베키** With 대구시 출산정책홍보관

제36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6.15 목 - 18 일 엑스코 동관

www.beKi.or.kr 문의 : 051-601-5374



# 경산시, '즐거로운 감염병 예방·관리 생활' 실시

## 읍면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경산시는 농업인, 고령자 등의 감염병 고위험군의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읍면 주민들을 위해 12일 진량읍 시문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경로당 63개소, 복지회관 8개소, 마을회관 9개소 총 1,3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관리교육을 한다.

주로 4~11월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임업 종사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올바른 손 씻기, 생활 속 방역 수칙 등 개인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교육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농작업과 제초작업, 산나물 채취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치명률이 높지만,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특히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명률이 12~47%인 중증 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전년보다 11.6% 증가한 192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40명이 사망함으로써 20.8%의 치명률을 보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지역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올바른 감염병 예방수칙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광삼/기자



# 포항시, 귀농귀촌 인생 나눔 소셜 다이닝 '농촌살이를 이야기하다'

## 죽장면 두마산촌생태마을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 참가자들 의견 청취

포항시는 12일 2023년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참가자 및 마을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죽장면 두마산촌생태마을에서 귀농귀촌 인생 나눔 소셜 다이닝을 가졌다.

이날 죽장면 마을주민들은 귀농귀촌 인생나눔 소셜 다이닝을 통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들의 3개월간의 느낀 점을 청취하고,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시 필요한 부분 및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항시 죽장면 두마산은 해발 500~700m에 위치해 면봉산과 보현산 자락의 분지에 120가구가 살고 있는 산촌에서는 보기 드문 큰 마을로 '하늘아래 첫 동네, 별 만지는 마을'로 유명하다. 지난 2021년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매년 참가자들 가운데 귀농인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에 죽장면에 조성된 귀농인의 집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지원요건은 귀농인의 집 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매달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면 1년부터 2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죽장외 기복면에도 귀농인의 집이 조성돼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도농 커뮤니티 상생문화 조성을 비롯한 정책사업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함께하는 생활문화, 영덕의 일상이 되다

## 영덕문화관광재단 '우다다다'파워업 프로젝트

### 참여 동호회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6월 26일(월)까지 영덕생활문화 역량강화 '우다다다'파워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호회를 모집한다.

'우다다다'파워업 프로젝트는 영덕 생활문화 동호회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영덕군을 거점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3인 이상의 생활문화 동호회이다. 다만, 동호회 구성원은 영덕 군민을 60% 이상 포함해야 하며, 학생동호회의 경우 전담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발된 동호회에게는 각 팀당 최대 200만원 내외의 강사비, 재료비 등 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이메일 및 예주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접수를 통해 1차 선정된 동호회는 컨설팅 후 최종 결정,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동호회들은 본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성장한 모습을 '우다다다' 교류회'에서 공연, 전시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3영덕생활 흥한참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우다다다' 파워업 '사업과' '우다다다' 교류회'를 비롯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프로젝트, 생활문화 동호회 발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탄한 지역 생활문화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사업' '모두의 생활문화'의 일환으로 생활문화 활동(생활문화 활동 확산, 생활문화 특성화,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 4월 '2023영덕생활 흥한참견'이란 사업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장문화/기자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안전한 경북을 그려가는 '안전경북 365포럼' 활동개시!

## 제1차 포럼운영위원회 개최, 재난안전분야 대응전략 제시



경북도는 12일 경일대에서 포럼 위원,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 제1차 포럼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 현안 사례, 정책방향 소개 및 정책과제 토론의 시간을 가

졌다. 재난안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안전경북 365포럼'은 2016년 10월 창립되어 7년째 지역의 다양한 안전 현안의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포럼은 6개 분과(정책산업육성, 재난취약대상방재, 생활교통관광, 첨단재난안전기술, 재난대응복구협업활동, 지역소멸대응안전(신설))에 60명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소멸대응안전분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이 급격히 진행되어 도로, 터널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므로 유사한 입장에 있는 우리 지역의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안전경북 365포럼은 경북도 안

전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23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재난경북 공유 플랫폼 구축, 실내 GPS 시범사업, 공동주택 관리자 매뉴얼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이 채택되어 추진 중이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과 찾아지는 지진,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면서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 예방과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전소재 단체장들 국회 찾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12일 국회 찾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

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전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관련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유)·이인선(대구 수성구)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

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자책임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원전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 기장, 울진, 울주, 영광)로 구성되어 있다.

윤타용/기자

# 케이메디허브, 위암 위험요소인 헬리코박터균 치료 개발 지원

##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환자 중심의 최적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치료제 제조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위암 위험을 높이는 헬리코박터균의 최적 제균 치료법 개발을 위한 의약품 제조를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헬리코박터균 치료의 최적 맞춤 치료법 개발' 연구과제 협업을 위해, 기존 1차 치료법

인 표준 3제요법과 유전자 검사 기반의 환자 맞춤 치료법에 사용되는 연구자 주도 3상 임상 의약품의 생산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 케이메디허브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헬리코박터균 맞춤 치료법의 연구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케이메디허브 의약품생산센터는 신뢰도 높은 임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이중눈가림 시험(시험자와 피험자 모두 배정된 군을 모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시험약과 구분되지 않는 고품질의 위약생산 및 품질시험을 수차례 걸쳐 지원했다.

이 밖에도 케이메디허브는 수차례 임상 의약품 제조 지원을 통해 형성된 의뢰사와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활한 임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약품생산센터는 GMP인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임상시험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케이메디허브가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임상 연구를 위해 GMP 기준에 적합한 고품질의 임상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 육성 돌입



## 광양시청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획용역 착수보고

전라남도는 12일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특구) 지정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획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 육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정인화 광양시장, 오익현 전남테크파크 원장과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차전지가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이 집중하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으로 떠오른 '기획발전특구'의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로 개인·기업의 투자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발전특구 지정 추진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과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정 공모는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번 용역에선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생태계 분석 등을 포함한 특화단지(특구) 지정 신청 준비뿐만 아니라 전남도 이차전지 산업 발전 로드맵 구축과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관련 기업 유치방안, 전문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광양만권은 이를 육성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특화단지(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영암군 춘동마을, 더 살기 좋은 마을 여건 갖춘다

### 농림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20억 투입

전남 영암군 미암면 춘동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농림부의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30가구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40% 이상인 농촌 마을을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

영암군은 춘동마을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해 올해 4월 1차 전라남도 평가, 6월 2차 국가균형발전위 대면 평가를 거쳐 사업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번 춘동마을의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총 7개 마을, 126억 원의 생활 여건 개조사업비를 확보했다.

2023년 6월 현재, 50세대 83명의 주민

이 살고있는 춘동마을에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마을안길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이 진행된다.

나이가 주인이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춘동마을 주민의 생활·위생·안전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암군의 주민복지사업과 연계해 마을주민의 더 나은 삶을 돕고, 더 많은 마을들이 더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 공모 선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 순천시, 제7기 청년정책협의체 소통 워크숍 가져

### 청년의 눈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현장 투어 진행

청년의 눈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현장 투어 진행



순천시는 지난 10일 청년센터에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협의체 위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활발한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통 강의, 협의체 본과 토의, 원도심 투어 등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위원들 간 공감 형성을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키워드 자기소개, 아이스 브레이킹, 청년활동에 대한 자유토의 등 프로그램을 레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재미를 더했다.

서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분과별로 당면해 있는 사안에 대해 그룹 토의를 진행하고, 지하도상가, 별미길 등 원도심 골목 곳곳을 다니며 계속 늘어나는 빈 점포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원도심 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원도

심상인회와 청년들이 함께 운영하는 '별미길 야시장'현장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가져 의미를 더했다.

청년정책협의체 이원기 위원장은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협의체 위원 간의 소통과 연대감이 중요하다. 워크숍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공감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라며 "순천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청년이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청년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협의체는 문화·소통, 복지, 일자리 3개 분과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로 의견수렴 및 정책 모니터링, 시장 활동 참여와 홍보 등의 역할 수행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 구례군 '화엄, 천년을 세우다.'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 천년의 '희망'을 노래했다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가 6월 10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 대화엄사 각황전, 대웅전, 보제루 특설무대 앞마당에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개최됐다.

'화엄, 천년을 세우다'를 주제로 펼쳐진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는 202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요가대축제 무대를 올린 것이다. 이번 화엄사 요가대축제는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년의 화엄성지 화엄사의 위용을 알리고 동시에, 지난날 5월 10일 고불식을 병행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을 맞이하게 될 각황전 앞 석등(국보12호)의 부분 해체 보수작업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지구촌이 하나이며 저마다 다른 모습의 개체를 상호 인정하고, 각자 서로 다름을 존중하자는 퍼포먼

스로 각각각색의 양산으로 표현된 대화합의 하모니를 지리산 대화엄사 도량에서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에서 준비한 인도 전통춤인 "까딱"을 선보여 요가 참가자와 일반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대한요가회 요가시범팀과 해금과 가야금 연주에 맞춘 시범은 전통 악기와 현대 요가의 콜라보로 프로 요가인들의 면모를 선보이는 시간이었다. 한편 특별 순서로 참가자 전원을 매료시킨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의 리듬체조 시범 순서는 행사의 백미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주지 덕문스님은 "계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족한 무대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훨씬 편해진 조건에서 요가대축제를 준비하게 되어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해마다 개최하는 요가대축제이지만 해마다

### 요가를 통하여 서로의 다름과 존중의 대 하모니

다 다른 것들을 선사한다는 마음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개인의 행복과 모두의 건강, 지구촌의 화합을 담은 행사이니 만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며 제3회 '화엄, 천년을 세우다.' 화엄사 요가대축제의 인사말에 가름했다.

한편 주한인도대사관 수린대 바가트(Surinder Bhagat) 부대사는 축사에서 "요가는 심신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고대 인도의 수련법이자 인도의 문화유산이라고 했으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요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리산 대화엄사 홍보대사 "마리엘 산드라 코르베(Mariel Sandra Korbe)"는 홍보대사의 첫 행사로 요가행사를 참여해서 " 너무 신났다. 사찰에 처음 와서 요가와 사찰음식을 경험해서 너무 좋았다" 라고 말을 전했다.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는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구례군체육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라남도요가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구례군, 전라남도체육회,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인도문화원, 불교리더스포럼, 대한요가회, UN세계요가の日 한국행사조직위원회가 후원하고 중흥건설, 진주한일병원, 신정종합건설, 프랑스로스, TS삼푸, 구례약수산, 맑은소리 맑은나라 협찬을 했다.

김성현/기자

## 나주시-신안군, '홍어 세계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출사표

### '생산지-발효지의 만남' 12일 양 시·군 업무협약 체결

영산강 바닷길을 통로로 홍어로 대표되는 남도 식(食)문화를 개척해왔던 두 지자체가 '홍어 세계화'에 출사표를 던졌다.

12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어를 매개로 두 지자체는 역사적 측면에서 남다른 인연이 있다. 신안 흑산도는 홍어 집산지, 나주 영산포는 삭힌(숙성) 홍어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종 25년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먹게 됐다.

당시 영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오는 데는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때 배에 싣고 온 생선들이 부패가 심해 버렸는데 향아리 속에서 쪄서 나온 홍어만큼 먹어도 뒤탈이 없는데다 먹을수록 알싸한 풍미가 있어 숙성 홍어가 영산포에 정착했다는 유래다.



남도 대표 음식인 홍어 생산지 신안군과 삭힌 홍어, 발효 식문화의 메카인 나주시가 손을 맞잡는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양 시군은 협약을 통해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공유, 지정문화재 추진 등 상호협력에 본격 착수한다.

에 따르면 고려말 남해안 지역 왜구의 노략질로 신안 흑산도 인근 영산도 어민들이 나주 영산포로 피난을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삭힌 홍어를

양 시·군은 홍어가 가진 역사적 전통과 독창적인 식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주는 19회째, 신안은 9회째 각각 홍어 축제를 개최해오며 남도를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홍어 음식 대중화에 이바지해왔다.

나아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홍어 식문화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조사 및 자료 공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등에 협력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포부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박우량 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시·군의원, 홍어 관련 명인·단체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주와 신안이 손을 잡고 계승해온 홍어 식문화를 확산하고 세계 인류와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 시·군과 의회, 생산과 발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명인, 주민들 모두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 마음으로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영산도와 영산포는 명칭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전라도 식문화의 본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남원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남원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1.5%(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

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촌활력개발센터정책팀 및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이남출/기자

# 진도소방서,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학급 모집 안내

진도소방서는 관내 초등학교 4·5학년층 대상으로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에선 참가 학급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화재·자연 재난·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시켜 평가해 안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재직인원 16명 이상의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1개 학급 전원이다.

동일 학교 내 복수학급 참가도 가능하다.

참가 학급 전원에게는 '불조심 길라잡이' 안전 교재가 제공된다. 내달부터 2개월간 학습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7일 참가 학급 해당 교실에서 평가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오는 28일까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진/기자

# 장흥소방서 회진면여성의용소방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회진면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7일 회진면 회진리 소재에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회진여성의용소방대 서미영 대장을 비롯한 6여명의 대원이 참여해 모판나르기 등의 일손을 지원했다. 뜨거운 땀방울 아래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모내기를 위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미영 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의용소방대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강진군 "무제한 무료 데이터, 안심하고 쓰세요"

## 강진군, 농어촌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완료

강진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20대에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안에서 탑승객 누구나 스마트폰 설정에서 'Gangjin BUS WiFi'를 선택하면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든 기기에서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서비스 특성상 누구나라도 접속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버스 무선인터넷 설치로 주민과 관광객이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들에게도 디지털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은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군내 주



요 관광지에서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정 모든 분야에 4차산업혁명 활용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를 꾸준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추윤호/기자

# 화순군 전남, 미생물 기반 항산화 생리활성화물질 기술개발 활성화 전망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품 연구센터는 8일 주식회사 누베파마(대표이사 송소연)와 미생물 기반 항산화 생리활성화물질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생물의약품연구센터는 고순도, 고수율의 경제적인 정제공정 개발과 대용량 제조 생산에 필요한 스케일-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협약을 누베파마와 체결했다. 누베파마에서 개발 중인 항산화 생리활성화물질의 정제 공정 개발과 성능 평가와 실증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조기 제품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베파마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으며 히알루론산 원료를 기반으로 의약품으로는 필러, 리프팅실 등을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화장품으로는 보습, 미백 효과를 가진 세럼과 탈모완화 기능성 세럼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제조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최근에는 피롤로퀴놀린 퀴논(이하 PQQ, Pyrroloquinoline quinone)을

바이오 공정으로 생산, 제조하는 기술의 특허를 등록하여 PQQ 기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의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누베파마는 현재 남미에 항산화 관련 제품의 완제품 생산라인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항산화 생리활성물질 핵심 원료인 PQQ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료생산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료 생산 제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류강 센터장은 "생물의약품연구센터는 미생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임상 시료를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기술을 활용한 항산화 생리활성화물질의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누베파마의 국산화 및 대량 제조 생산에 필요한 공정개발을 위한 실증연구에 생물의약품연구센터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 기술 확보와 연관 기업 도내 유치 등으로 전남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윤경호/기자

# 전남생물의약품연구센터-주식회사 누베파마 업무협약 체결



#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용역 추진으로 의미있는 통합의 한걸음



목포시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통합에 따른 공동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해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목포시는 지난 8일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 시의원, 군의원, 간부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추진방향, 연구방법, 연구절차 및 일정 설명 등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통합 연구 용역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용역은 양 시·군이 함께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통합 전 생활에서 바로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 상생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연구해 통합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동연구 용역 추진으로 통합의 상생과제,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여 목포·신안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로드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 뿐만아니라 작은 섬까지도 찾아가서 지역민들의 우려사항을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타지역 통합 사례분석과 지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과 아젠다 발굴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 완도군, 지방세 성실 납부한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 도 선정 3명, 군 선정 4명에게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 수여

완도군은 지난 8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 7명을 선정하여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

모범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백만 원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 자체로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 유한회사, 완도읍 최복주님, 노화읍 황욱익 님, 고금면 이장현 님이다.

또한 지난 3월에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소안농협동조합, 완도읍 홍종기님, 약산면 오재환 님에게도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군에서는 완도군 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군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게 됐다.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게는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하는 물론 전남도 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1대), 세무조사 3년간 면제(법인), 지방세 징수 유예(2년간 1회 면제),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군 주요 행사 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를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창업일을 맞이한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했던 첫날

### 강원특별자치도청 현판식, 강원특별자치도 1,2호 결재 실시

6월 12일, 오전 8시 30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였다. 다만, 출근하는 장소는 강원도청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이었다.

김진태 지사는 오전 9시, 강원특별자치도청서 현판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이어 도청 본관 현관 쪽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식수로 소나무의 한 품종인 36년 된 반송을 식재하였다.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2호 업무결재를 진행하였다.

1호 결재는 강원특별자치도 2,811명 전 직원의 임용서로 강원도청 직원들이 모두 정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2호 결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위한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유관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식에도 참석하였다.

오전 10시에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기념식에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300만 도민의 힘을 모아준 권혁열 의장님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라고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도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이 56번 나온다. 이 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권한은 '도지사 혼자만의 권한'이 아닌 '도의회가 승인하고 견제할 '도민 모두의 권한'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과 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오후에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에서는 "교육특구, 국제학교 등 주요 교육 특례들이 아직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꼭 3차 개정에는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신경호 교육감님 교육철학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첫 대외행사인 제25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도 참석하였다.

강원목민봉사대상은 매년 목민관의 정신을 이어가는 공직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5개 부문(대인, 소방, 일반, 교육, 경찰)에 시상을 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기업지원과 김중렬 팀장에게 표창패와 함께 격려 인사를 전달하였다.



오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사우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주소가 표기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행정시스템 변경을 직접 점검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으로 주민등록, 지방세 등 280종의 정보시스템과 안내 표지판 등이 변경 대상이다.

이로 인해, 6월 9일 금요일 18시부터 6월 11일 자정까지 데이터 변환작업을 위해 민원서류 발급 등이 전부중지되었고, 6월 12일 00시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오픈, 09시를 기점으로 대민서비스를 전격 오픈하여, 100% 정상 가

동 중이다. 도내 총 2,953개의 안내 표지판 중 이미 97%에 달하는 2,861개는 변경을 완료했다.

나머지 92개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날 강원특별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은 김진태 지사는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창업일이다. 축제의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일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차분하고 내실 있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동원/기자

## 원주시, 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 AI 기반 동영상 제작 및 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원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적용, 핵심 업무 개선, 고난도 문제 해결, 중요 현안 해소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반 동영상 제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사 이미지를 등록, 가상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 기반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영상 자산뿐 아니라 대외 홍보 이미

지까지 통합 보관·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DAM(Digital Asset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 영상 자료 분실을 방지하고 부서 간 자료 공유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술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산업 생태계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강릉시, 2023 실버양봉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총 12명 선정, 월 2회 선도양봉농가 방문하여 5개월간 체험교육 진행

강릉시는 은퇴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실버양봉인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양봉인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12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최근 실버양봉인 육성교육을 시작했다.

육성교육은 양봉사육 경험이 풍부한 선도양봉 농가가 꿀벌 사양관리 및 질병 관리 방법, 양봉산물 채집방법 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실버양봉인은 선도양봉 농가를 월 2회 방문하여 5개월간 현장체험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종료 후 벌통 구입을 희망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꿀벌실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사육기반 회복을 위하여 지난 5

월 사천면 노동리 일원에 밀원수를 확대 식재(2ha)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중봉(벌통) 등의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육성교육을 통해 양봉 인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 태백시, 음식·숙박업 위생 체육인증업소 확대 지정 추진

태백시는 민선 8기 스포츠의 재도약 공약에 발맞춰, 시를 방문하는 체육 선수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인증업소 지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현재 태백시 체육인증업소는 음식점 44개소, 숙박업소는 24개소로 총 68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올해부터는 음식점 90개소, 숙박업소 30개소로 총 120개소로 확대 지정하고자 한다.

신청 대상은 태백시에 신고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영업장이 있는 사업자로 체육선수들에게 덤, 할인, 친절, 청결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업소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시청 민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

는 21일까지며, 시 관계자는 으뜸, 모범, 먹거리 음식점이나 위생 녹색 최우수 등급의 숙박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체육인증 업소 지정은 지정기준표와接客업자 준수사항 및 친절도 등 고객인지도, 서비스 정도(덧밥 제공, 할인 등), 민원발생 유무 등을 심의하여 6월 한 신규 및 재지정 업소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소에 대한 지정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유지된다.

체육인증업소로 선정되면 음식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40매, 음식 포장용기 1박스(100개)증정된다. 숙박업소의 경우 전지훈련팀이 5일 이상 체류시 숙박 금액의 20%를 태백상품권

으로 돌려준다.

이상호 태백 시장은 "우리시를 찾는 선수들에게 최고 수준의 위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인증업소 지정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안전한 위생 관리와 스포츠 지원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 박경귀시장 "아산시와동관시, 韓-中 대표 경제도시로 성장... 새로운 미래 기대"

### 중국 동관시 대표단, 2박 3일 일정으로 아산시 방문 "양국 교류 재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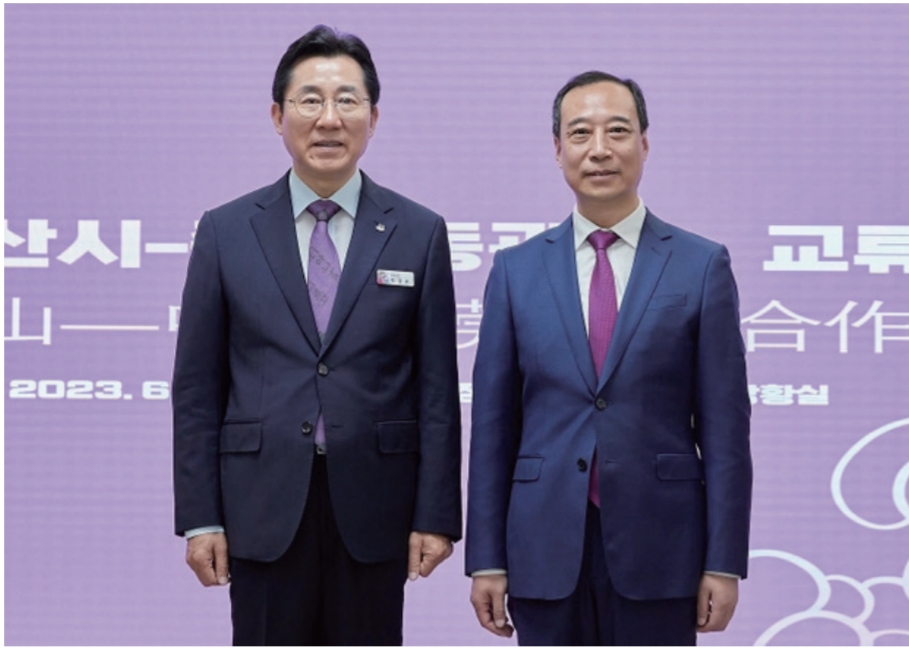
뤄칭시(吕成蹊) 동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동관시 대표단이 11일 2박 3일 일정으로 아산시를 방문했다. 아산시와 동관시는 지난 2012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육·문화·경제·공무원 상호파견,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교류를 이어왔다.

동관시는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해외 자매도시 방문을 재개하며 첫 방문지로 아산시를 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경귀 시장은 12일 아산시청을 방문한 뤼칭시 시장 등 동관시 방문단을 환영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온천과 대한민국 최초 보양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온천관광 도시이자, 1년 내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라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동관시는 '세계의 공장'이자, 상하이 베이징과 함께 'GDP 1조위안 클럽'에 합류한 중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 활발한 외자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룬 중국발전의 상징"이라며 "양국의 대표 경제 도시로 성장한 두 도시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며 만들어 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이어온 두 도시 우정의 결실인 행정, 청소년, 문화, 경제 분야 교류 역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31년 동안 이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가 향후 수백 년 동안 더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뤄칭시 동관시장은 "양 도시의 미래에 대한 제안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 화답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아산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며, 산업 발전이 상당히 빠른 도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첨단 기술 도시인 아산의 열정이 온몸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고, 두 나라는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인적교류, 광대한 경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동관시와 아

산시의 우호 결연은 한중 우호 교류의 눈부신 성과"라고 말했다.

뤄칭시 시장은 "박 시장님의 제안처럼 엔데믹 시대에 우리 양 도시는 교류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박 시장님께서도 동관시를 방문해 동관시에 진출해 있는 아산 기업을 격려해주시길 바란다"며 답장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동관시의 산업과 환경,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동관시 측의 초청 제안에 긍정적인 답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관시 측이 제안한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산업 협력, 대학간 협력을 통한 국제 교류, 문화예술 교류 강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전했다.

동관시 대표단 측은 "지난해 아산시 공연단이 동관시에 위치한 대극장에서 공연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면서 "문화와 예술, 학생 교류 등에 대해 기대가 아주 크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동관시 방문단에는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과 양 도시에 거점을 둔 30여 개 기업 대표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유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암민속마을과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을 견학한 뒤 13일 본국으로 돌아간다.

김원호/기자

## 천안시, 저소득 다문화부부 위한 16번째 무료 결혼식

### 뇌병변 장애 아내 둔 중국 국적의 가정 '행복웨딩데이' 주인공으로 선정

중국 국적의 윤모(53) 씨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서모(50) 씨가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베리컨벤션에서 16번째 다문화가정 무료 결혼식 '행복웨딩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천안시와 베리컨벤션이 2021년 체결한 다문화가정 무료결혼식 지원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정과 장애 가정을 선정하면 베리컨벤션이 예식장 대관,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웨딩사진, 뷔페 식사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 첫 결혼식 주인공인 이들 부부는 결혼한지 3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윤모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내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이뤄 주고자 '행복웨딩데이'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행복웨딩데이'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가정에 무료 결혼식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7가정에 무료 결혼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에게 무료 결혼식을 통해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무료 결혼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천안시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괴산군, 어르신들의 결핵검진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결핵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인양시설 7개소, 2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와 연계해 이동검진차량으로 흉부 X선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의심소견이 발견될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21년 기준 약 18,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약 1,300명(2021년 기준)이 결핵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특히, 결핵 신규환자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만큼 어르신에게 결핵 발생률이 높으며, 결핵 사망자 중 82.4%(2021년 기준)가 65세 이상이다.

결핵은 예방·진단·치료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비교 시 △성인용 백신 부재 △긴 잠복기간(평생) △복잡한 진단검사(4~5단계) △장기간 치료과정(6~20개월) 및 부작용 △높은 치명률(코로나의 10배 이상) 등의 특징이 있다.

윤태근 보건소장은 "결핵은 여전히 발생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발병 위험성에 낙관적 편견이 존재해 결핵 예방을 위한 검진 필요성을 인지해도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은 행동 변화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결핵 감염 고위험군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꼭 결핵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 충북도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을 통과하여 예타 신청



국토부는 6월 9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청주도심통과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2023년 6월 7일 11시 청주시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 지역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이 개최됐으며, 이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전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충청도민과 청주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역의 주요거점을 모두 연결하도록 계획했으며, 특히, 충북 청주 주민들도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충북도, 청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청주도심을 통과하도록 광역철도 노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주 도심 통과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충북,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공"이라고 돌리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명실상부한 충청권 지역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즉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최대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는 장래 충북과 청주시 미래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청주시와 공동 대응을 통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 경북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본격화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실무 협상에 박차를 가하다

경북교육청은 9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협상단 전체 회의 및 실무협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상단 전체 회의는 지난해 12월 고시된 '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1건의 BTL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실무협상단 회의는 '오천초 외 2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경북스마트교육(주)와 '구미초 외 1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칭)경북미래배움터(주)와 주무관청 측 실무협상단이 첫 만남을 갖고 다각도로 협상 진행 방안

에 논의했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올해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4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오천초 외 2교 번들로 오천초, 길주중, 안동송현초 3개 학교 △구미초 외 1교 번들로 구미초, 상산초 2개 학교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창의성과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방식을 적용해 학생 및 교육 수요자들에게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한 교육시설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 근무자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

### 올해 처음 지원... 의무 검진 대상자 3만9,000여 명 5월 말 검진 완료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내 결핵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근무자에게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진행 중이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 의무 검진 대상자 3만9,000여 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결핵검진 지원은 해왔으나 잠복결핵감염검진 지원은 올해 처음이다.

잠복결핵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의무 검진 대상이나 그동안 교직원은 수업 등으로 진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단기 근무자는 검진비 부담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는 전문인력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별 거점 검진 장소를 운영해 학교에 근무하는 의무 검진 대상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3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검진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검진결과 잠복결핵감염 의심자는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잠복결핵감염검진 지원 사업은 학교 내 결핵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은 물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어렵고, 단기 근무자는 검진비 부담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남출/기자

# 전남교육청, 교육물품박람회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

### 미래교육 콘텐츠·기자재 전시, 체험, 정보공유 한마당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여  
전성교육 대전환을 이룬다.

## 2023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박람회

2023. 6. 28 ~ 6. 30 (3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

- 개막식**
  - 연: 제1 2023. 6. 28(수) 10:30
  - 여디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
  - 내: 총 1 내빈(전남 / 제주시 / 목포시 / 무안군)
- 제품전시**
  - 연: 제1 2023. 6. 28(수) ~ 6. 30(금)
  - 여디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
  - 내: 총 1 전남 우수제품, 시, 로보, 지역교육기자재
- 공관구매 설명회 개최 등**
  - 공공구매제도 교육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 지역교육기자재 소개 설명회 운영

사무국: 061) 260-0782

주최: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KBIZ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하는 2023.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박람회를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전남교육청이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경기 위축으로 힘들어진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이 박람회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교육물품박람회는 교육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공사용 자재, 정보통신기기, 교육용 교재, 비품 등 제품의 홍보·전시·관람·체험을 통해 제품 특성 및 구매정보를 안내하고, 지역업체 판로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전남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전시·홍보와 더불어 AI, VR, 드론, 코딩교육프로그램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최신 교육 콘텐츠와 기자재 정보를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막식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공연장에서 교육청 및 중소제조업체 관계자, 도

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 기간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제도 설명회를 함께 운영하고, 박람회를 방문하는 교직원들의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상시 학습도 인정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물품박람회를 계기로 교육기관과 참여기업 간 상생 협력을 이뤄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기대한다."며 "도교육청은 이 박람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약 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 '다문화 학생과 소통 능력 키워워' 경기도국제교육원, 직무연수 확대 운영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이 다음달 21일까지 '생활기초외국어 온라인 직무연수'2기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학생 소통과 학급 운영을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앞서 교육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직무연수 1기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기는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하고 인원도 언어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기소개와 수업시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등 회화표현을 비롯해 베트남 등 4개국 언어권의 교육제도 및 학교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총 10차시로 구성됐다.

1기 직무연수를 이수한 한 교원은 "연수에서 배운 회화 표현을 수업과 학급 지도에 적용해 다문화 학생들과 소통하게 됐다"며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 주고 격려해 줘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외국어 의사소통과 상호문화 이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2023 '부산 골목 페스티벌' 개최

6.17.~ 7.2. 매주 토·일요일 전포공구길·

봉산마을마실길·망미골목에서 '부산 골목 페스티벌' 열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주말 전포공구길, 봉산마을 마실길, 망미골목 일원에서 '2023 부산 골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부산 골목 페스티벌'은 2021년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발굴된 부산진구 전포공구길, 영도구 봉산마을 마실길, 수영구 망미골목에서 그 골목의 색깔을 살리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부산 골목의 맛과 밤'을 주요 주제(테마)로 진행된다. ▲전포공구길에서는 지난해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설치된 미디어아트 및 고보조명과 전포공구길 캐릭터 맞춤형 광고(사이니지)로 도심 변화의 생동감 넘치는 밤을, ▲영도 봉산마을 마실길에서는 부산 대표 야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항의 활활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고릴라브루잉, 와이드웨이브, 톱브로이 부산 대표 수제 맥주를 열치, 미역, 고등어 등 부산 대표 식재료를 활용해 특별히 개발한 안주와 함께 맛볼 수 있다.

우선, 한국관광공사 2023년 강소형 잠재관광지로도 선정된 '전포공구길'에서는 6월 17일과 18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특별 공연으로 유명 길거리 그림(그래피티) 작가의 그림그리기 공연(드로잉 퍼포먼스), 디제이 축하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부울지사는 클래식카 전시 및 전포공구길 상인회 상가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며, 부산진구청과 전포공구길 상인회는 행사장 쓰레기 캠페인 등을 진행해 행사가 풍성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봉산마을 마실길'에서는 6월 24일과 25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영도골목 투어와 블루베리 수확 등 체험활동과 부산항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루프톱)에서 배우 김의성이 '부산 미식과 골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망미골목'에서는 7월 1일과 2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망미골목과 비콘그라운드에서 '망미 아트 앤 북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아이들이 책과 장난감을 판매하는 '놀이마켓', 망미골목 서점들의 '북마켓'과 사전 온라인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산 테마 도시락, 수제맥주, 전통주를 제공하는 '부산미식테이블'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행사 전날까지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참가자를 모집하며(망미골목 부산미식테이블 등 일부 선착순 및 유료), 자세한 내용은 2023 부산 골목 페스티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부산 골목 페스티벌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부산 골목 곳곳에 숨겨져 있던 매력을 발견하고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서울로 성지 투어 떠나볼까

서울시·서울관광재단, 서울의 방탄소년단 관련 명소 13개 선정, '서울방탄투어' 지도 제작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페스타(2023 BTS FESTA)를 맞아 방탄소년단 관련 서울 주요 명소 13개가 포함된 '서울방탄투어' 지도를 제작했다. 서울방탄투어 명소는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자주 찾던 장소, 자체 제작 콘텐츠인 '달려라 방탄' 등 주요 콘텐츠 촬영지였던 서울의 명소들을 엄선했다. 이번 서울방탄투어 지도에는 장소별로 연관성 있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을 함께 제공했으며 지도 내 쿼일(QR) 코드를 통해 유튜브 링크까지 제공하여 즐거움을 더했다. 6월 17일, 여의도 행사 현장에서 서울 홍보부스(Seoul in Purple)를 운영하며 스탬프 투어,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6월 12일부터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가 보라빛으로 물들 예정이며, 세종문화회관, 세빛섬, 남산서울타워에 미디어파사드를 상영되어 축제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이브 용산 사옥이 'BTS PRESENTS EVERYWHERE'라는 2023 BTS FESTA 공식 슬로건으로 장식되는데 이어 서울시청, 남산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섬, 반포·양화·영동·월드컵대교 등에서 보라빛 점등을 감상할 수 있다. 외래 관광객 직접 참여에 있는 총 14개의 서울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에서는 관광안내사가 직접 방탄소년단 상품을 착용하고 2023 BTS FESTA 포스터를 비치하는 등 행사 홍보와 함께 현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6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특별 프로그램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스탬프 투어는 한정판 서울 명소 카드에 등장하는 7개 장소를 방문해서 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은 뒤, 오프라인 주점을 통해 방탄소년단 공식 상품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형 이벤트이다.

서울 홍보부스(Seoul in Purple) 방문 시, 서울방탄투어 지도와 함께 한정판 서울 명소 카드 등 방문객들을 위한 선물도 받아갈 수 있으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면 방탄소년단 상품과 서울관광재단에서 준비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방탄소년단 관련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정보를 비짓서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서울을 방문할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원경/기자



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6월 16일 14:00에 하이브, 영등포구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행사 전 안전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행사가 개최되는 현장에서는 종합안전본부와 운영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각 분야의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갖춘다. 해당 행사로 인하여 6월 17일 14시부터 여의도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되어 여의도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이 17일 12시부터 모두 후회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행사 종료시간에 맞춰 지하철 5·9호선 및 신리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

터 토피스(TOPIS) 누리집 및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2023 BTS FESTA는 지난 5월 초 서울페스타 2023에 이은 외래 관광객의 서울 방문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이벤트"라며 "방탄소년단 팬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관광재단 글로벌1팀 권혁빈 팀장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맞아 전세계의 팬들이 FESTA를 즐기 위해 서울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로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객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창원시 문화예술과 '온라인 시민합창단 100만싱어즈' 참여

시민들과 한마음 한목소리로 제5차 창원문화도시 지정을 응원합니다~

창원특례시는 창원문화도시서비스업의 일환인 '온라인 시민합창단 100만싱어즈'에 참여하기 위한 영상 촬영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합창단 100만싱어즈'는 창원 100만 시민이 합창을 매개로 하나 된 창원특례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창원특례시와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지정된 음원 '아름다운 세상(창원)'을 노래하며, 문화도시 창원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촬영된 영상은 챌린지 영상으로 제작되어 6월 30일 성산구 융지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창원시민의 날 축하음악회'에서 100명의 아



마추어 시민합창단 공연과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정진화 문화예술과장은 "창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을 전달하고자 참여했으며, 100

만 창원시민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창원문화도시 지정을 응원해주는 표현인 것 같다"며 직원들에게 함께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궁영/기자

# 속초시, 2023 실향민 문화축제, 시민 참여 속 다양한 행사 진행

축제 이틀째 함상위령제 등 실향민과 시민들 참여로 축제 순조롭게 진행



'2023 실향민 문화축제' 이틀째, 청초호 엑스포 잔디광장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과 실향민들이 행사

장을 찾아 축제를 즐기고 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조도 인근 해상에서 함상위령제를 시작으로 '남북 예술인 합동공연'과 이전 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속초·이북사투리 경연대회'가 새롭게 펼쳐진다. 대표적 실향민 문화 중 하나인 사투리를 통해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실향민 문화를 선보이고 나아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북 5도를 대표하는 20개의 무형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북무형문화재 축제'를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축제를 찾은 분들에게

선보인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실향민문화 테마거리와 포토존에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추억을 남겼으며, 이북·실향민 및 지역 먹거리 부스, 실향민문화 홍보 및 지역문화 체험부스 등 축제장 곳곳에서 실향민과 속초의 특색 있는 문화를 경험했다. 한편, 축제 첫날(9일) 저녁 엑스포 잔디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린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갯배' 공연에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뮤지컬에 출연한 속초시 홍보대사 신승태는 열정적인 공연으로 많은 환호를 받았다.

이원경/기자

#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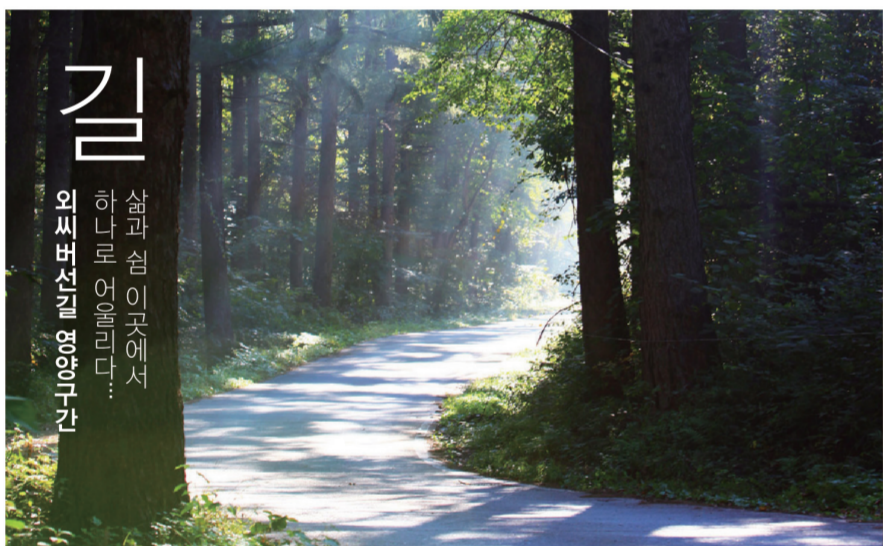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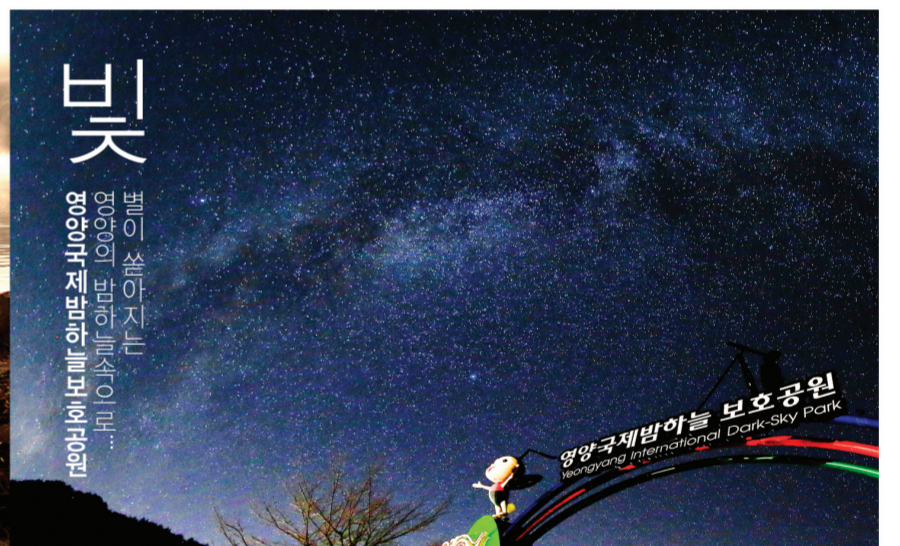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선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제다 아는 건데...  
영양고추향미어린  
3500 원표면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 하늘을  
영양고추향미어린  
3500 원표면



얼

시몬학의 대가  
석문포 정호봉 서평의 정호봉...  
영양서지



맛

사백년들이어린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3500 원표면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향미어린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